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다.' 모한 말이지만 조계종의 올 한 해 평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총무원장법장스님이 있다.

일부에서는 "종단이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어려운 속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총무원장 입만 쳐다보며 1년을 보냈다"며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모한 평가'도 바로 이런 양극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성과와 과제는 분명히 선이 그어진다.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들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지만 종단 난립에 따른 문제점과 일부 종단의 종권 분쟁으로 어수선한 한해를 보냈다.

### 해넘기는 과제들 ③

#### 각 종단의 주요정책 (下)

#### 클 씬는 순서

- ① 동국대 100년 대회는 있는가
-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 ③ 각 종단의 주요정책

— 말사주지 임명권 본사주지 이양 및 직할교구 활성화

법장 스님은 입기 초반 공약대로 말사주지 임명권을 본사주지에게 이양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말사주지 임명권 이양은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사 시스템을 통해 종단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했으나 올해 시도하지는 못했다.

직할교구 활성화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수도권 사찰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주지인사제나 사찰재정 운용 등에 있어 올바른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서둘러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 각 종단

##### ●종단 난립 종권분쟁 심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종단의 난립은 불교계의 풀리지 않는 골치덩어리로 떠올랐다. 이 중에는 10여개 사찰과 승려로 구성된 종단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든 소속 승려가 종단 임원을 겸임하면서 큰스님 행세를 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심지어는 불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교라 할 수 없는 유사종교도 있어 불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종단 등록을 의무화한 불교재산법이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대체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종단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전통사찰보존법으로는 유사종교와 군소종단 난립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규제할 수 있는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종권 분쟁도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일불선교종, 대한불교법화종, 원효종, 대승종, 심원종 등 10여 종단이 종권 분쟁으로 총무원이 두 곳이거나 둘로 쪼개져 종단 난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소송, 민·형사상 고발로 번져 삼보장재 낭비로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뜻있는 불자들은 더이상 불교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키는 종권 분쟁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한다. 또한 불자들은 종권과 재산에만 관심을 둔 '명분 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승가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화합정진의 회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한명우·박봉영 기자

## '행정체계' 잡고 '민감사안' 유보

#### 조계종

##### ●성과

올 한 해, 조계종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새 총무원장이 선출되고, 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 집행부에 임명됐다. 종단 조직에 대한 전문적 진단이 진행되고 있고, 전통불교문화센터와 교구본사별 승려노후복지 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별변자를 제외한 징계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련 제도 개선 추진, 대정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종립학교 육성책 마련,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세계문화 축제화 등도 가시적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이 성과의 대부분은 과거 어느 총무원장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불교계와 조계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는 아니다.

또 하나는 법장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 과거 정치 위주에서 행정 위주로 조계종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 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장 스님의 이런 기조는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종단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과이자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 ●해넘기는 과제

###### —별변자 사면

올 한 해 조계종의 최대 현안이었던 98년 별변자 사면 논란은 연내에 마칩표를 찍지 못한 채 결국 내년 3월 열리는 임시 중앙총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과정에서 찬성쪽과 반대쪽의 소모전이 이어졌고, 사면 방식에 있어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해 혼란을 반복했다.

당초 종헌 개정을 통해 별변자 사면을 추진했던 법장스님은 종헌 개정이 무산되자 법규위원회의 '98별변자에 대한 심사 개시' 판결을 근거로 별변자

들의 별변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승적 정정'이라는 행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부 종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시 '종헌 개정'을 통한 해결을 선회했다.

문제는 종도들의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종단 내의 시각차가 분명해 내년 3월에도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장스님의 임기 2년째는 물론, 조계종 화합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줄 가능성이 크다.



△조계종 중앙총회 모습. 중앙총회는 총무원 집행부와 함께 조계종 운영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종단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상설행자교육원 건립 및 승가교육 재정비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은 오래전부터 거론돼 온 종단의 숙원사업이다. 내실 있는 교육과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상 구원을 위해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 건립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 따라서 건립계획은 최소한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상설행자교육원 건립이 승가교육 재정비와 맞물려

### 행자 교육원·주지 임명권 여전히 '난제' 별변자 사면·비구니부 신설 미뤄져

#### 조계종

—비구니부 신설 및 비구니 수행도량 지정 제도화  
법장스님은 31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뒤에도 총무원에 '비구니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었다. 그리고 종단 사상 처음으로 총무원 집행부에 비구니 스님을 발탁하는 등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더

이상 진전된 것은 없다. 당초 계획은 올해 안으로 비구니부 신설과 비구니 수행도량 지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비구니부나 수행도량은 비구니에 대한 배려가 아닌 비구니 인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승가 구성원의 반 수 이상이 비구니이지만

### 10여 종단 종권분쟁...각종 소송 빈발 유사종교·종단 우후죽순...큰 부작용

#### 각 종단

종단 차원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종단에서 공식 기구를 만들어 조직체계를 세우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해는 넘기지만 내년에 설치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기 때문이다. 승가교육 재정비는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누구도 강요한 사안이며, 현재 교육원에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어떤 체계로 승가교육제도가 재정비될 것인가에 따라 상설행자교육원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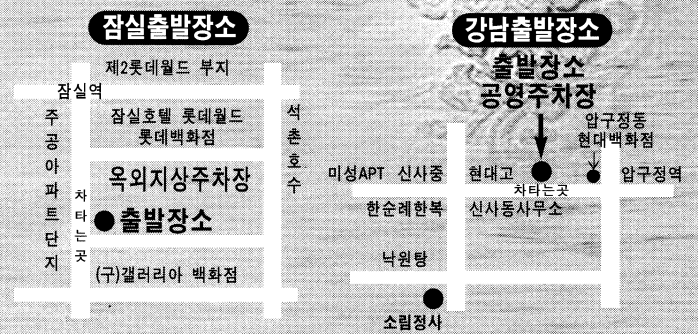
# 새해아침 신년기원 해오름기도 철야용맹정진 대법회(제16회)

불국청토성취 나라번영 세계평화기원

신라 천년의 역사가 서린 한국제일 동해 경주 감포 대왕암 방생장에서 장엄한 일출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여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갑신년 새해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 해 뜨는 시간에 불자님의 정성과 새해의 소원이 담긴 등을 달고 신년 기원 대법회를 전국에서 인연동참하신 여러분 불자님이 대거 동참하시는 가운데 장엄하고 정대하게 봉행올리며 부처님의 공덕이 중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89년부터 해마다 전국적 규모의 연례대법회로 봉행되어 금년 제16회에 이르는 뜻깊은 법회입니다. 아울러 발원불자님의 인연영가와 유주무주 고히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는 천도법회도 함께 봉행합니다. 전국인연불자님께서는 수회 동참하시어 소원성취인연 지으시기 바랍니다. 南無 관세음보살 마하살

- 출발 일시 : 2003년 12월 31일 오후 2시
- 잠실출발 장소 : 잠실호텔롯데월드 옥외주차장 (잠실역에서 롯데월드 방면으로 나오셔서 롯데쇼핑센터 끝나는 지점까지 곧바로 걸어 오시면 됩니다. 약200m)
- 강남출발 장소 : 압구정 현대백화점 옆 공영주차장
- 해오름기도일시 : 2004년 1월 1일 새해 아침 해뜨는 시간
- 장 소 : 동해바다 경주 감포 대왕암 신년대법회장(한국제일 방생도량)
- 신년기도 동참금 : 5만 원(인) (불자님의 신심증정을 위하여 참배비용의 상당부분을 본사에서 감당합니다.)
- 접수 마감 : 2003년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오셔서 담당자에게 접수하시고 동참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 도착 : 1월 1일 오후 6시 예정
- ※공양준비 : 12월 31일 저녁공양과 2004년 1월 1일 아침·점심공양은 본사에서 마련합니다.
- ※준비물 :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세면도구, 손전등
- ※불자님 가족의 건강과 성취를 기원하는 '울'자를 새긴 손수레 관음상 호신목걸이와 불교경전, 법문테이프 등을 보시하여 드립니다.
- 해오름 기도후 인근의 신라시대 명찰 참배 예정입니다.
- 해오름기도는 학업정진중인 자녀와 온가족이 함께 동참하시는 예가 많습니다.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FAX:511-6216  
 TEL:3446-2158,2185/3443-9871~7/511-6210~5